



디지털트윈으로 구현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관제(왼쪽 사진), 울산에서 C-ITS 기반 자율주행 버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SK텔레콤·KT

## 월드컵 경기장 등 자율주행 도로 넓어진다

SKT, 상암 내 자율주행도로 확대 KT, 제주 이어 울산에도 C-ITS LGU+ 자율주행 플랫폼 등 구축 관련 기업과 협업해 기술 개발도

통신 기업들이 자율주행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와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구축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관련 기업과의 협업도 늘고 있다.

### ●C-ITS 실증사업 확대

먼저 C-ITS가 적용된 도로를 넓히고 있다. C-ITS는 차량사물통신(V2X)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도로 시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위험요소, 돌발 상황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C-ITS 실증사업 일환으

로 진행된 서울시 상암 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확대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상암 일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 도로는 기존 상업 및 주거 지역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 등 주변까지 넓어졌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시범운영지구를 3D로 구현하고, 이를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여러 대의 차량 및 신호, 위험 알림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상암 지역 총 24개 도로 32.3km 구간을 신호제어기, 불법주정차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감지카메라 등 인프라를 확충해 보행자 알림, 돌발상황 CCTV 영상 제공 등의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자율주행차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V2X 단말기를 장착해 SK텔레콤의 안전 운행 정보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2019년부터 서울시 C-ITS 실증사업을 이끌어 왔다.

KT는 2020년 제주도 C-ITS 실증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4월 울산광역시에서 C-ITS 구축을 마쳤다. 제주도에선 관광 특화 서비스, 울산시에선 화물차 과속방지 경고 등 각 지역특성에 맞춘 킬러서비스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세종시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 ●관련 전문기업과 협업도

운수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KT는 경기도 안양시 시내버스 기업 삼영·보영운수,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 오토노머스아이투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3사는 심야·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 셔틀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KT는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위프트 내비게이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초정밀 측위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초정밀 측위 정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KT는 C-ITS 영역 등에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에이스랩과 함께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량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섰다. 클라우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상 여부를 빅데이터와 AI로 판단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3분기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증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에이스랩은 2019년 3월 5G 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차의 도심 주행, 2020년 12월 5G 통신을 통한 자동주차 등을 선보여 왔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 LG전자, 2030년까지 추진할 ESG 전략과제 선정

### 공정 개선·에너지 절감기술 도입 외장부품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LG전자는 6월30일 ESG위원회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ESG 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우선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정개

선,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소비전력, 단열성능, 열교환기 기술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품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장부품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사

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폐기물매립제로 인증을 취득하고, 해외사업장에서는 슬러지 원료화 등 국내 모범사례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을 탑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 자문단을 운영하며 신제품 개발 시 개선점을 적용해 나가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주요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인벤토

리'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 및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발생원인과 종류, 배출량 등을 목록화하고 관리하는 정보체계다. LG트윈타워에 근무하는 LG전자 임직원 등은 이달 중순부터 대화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부터 챌린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무실 각 층별로 대화용컵 자동세척기를 설치했다.

김영민 기자

## G마켓·옥션, 여름 휴가 '여행 빅세일' 오픈

G마켓과 옥션은 10일까지 국내외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 빅세일'을 진행한다. 쿠폰과 특가, 휴가, 랭킹 코너로 구성했다. 휴가 코너에선 사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등 고객이 선호하는 11개 키워드와 연관된 상품을 선보인다. 특가 코너에서는 국내 및 해외여행 상품 8개와 항공권 2개 등 총 10개 여행상품을 매일 자정부터 특가 판매한다. 프로모션 기간 라이브방송도 매일 오후 8시마다 매일 진행한다.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매일 발급받는 10% 여행 쿠폰과 10% 신용카드 중복 할인 혜택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항공권은 누구나 최대 1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클럽 회원은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된다. 랭킹 코너에서는 실시간으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을 안내해준다.

한편, G마켓과 옥션이 5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1만 623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휴가철 여행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여행 계획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3%가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내년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3%가 '있다'고 답했다.



## 11번가 91개 사회적경제기업과 특별기획전

11번가가 4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기획전(사진)을 진행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 기획전이다. 11번가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총 91개 업체의 제품을 소개한다. 각종 농수축산물, 밀키트, 음료, 생활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약 260여개 상품을 준비했다. 11번가는 기획전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0% 할인쿠폰'(최대 2만 원)을 10장씩 제공(1인당 1회)한다. 백장동 11번가 대외협력담당은 "친환경, 업사이클링 등 가치소비에 많은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11번가에서 '착한 쇼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번가는 12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착한 쇼핑' 전문관 'SOVAC(소백마켓)'의 오픈 1주년 맞이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SK그룹 사회적기업 행복나라와 협업한 행사로 SOVAC마켓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상품 총 2200여 개를 선보이며 행사 기간 '30% 할인쿠폰'(최대 1만 원)을 제공한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오늘의 날씨			4일(월)		
서울 20/10	인천 20/10	춘천 20/60	25 33	24 30	23 33
강릉 0/20	대전 30/60	전주 20/60	27 33	25 33	24 33
광주 30/60	대구 20/60	부산 70/60	25 33	25 34	24 30
창원 70/60	제주 60/30	지역	24 30	25 31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5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정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donga.com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4일(월) 음력: 6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비나 조연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이성간의 금전관계,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어더라도 감싸주고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예술·연구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두가지를 나타내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오늘은 장성할 날이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기기 위해 출사하는 날이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직업상의 변동·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다.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마가 낀다. 쥐피와 상의하라.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 현재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 취직이나 입찰을 시도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 말피에게 부탁하라.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그러나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도화의 날이다. 친구나 주변인의 유혹으로 인한 재물손실이 가장 불화가 있을 수 있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육해일이며 양파에게는 인성이다. 서두르는 날이다. 따라서 오늘은 매사 꼼꼼히 살펴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안정 상태 유지에 힘써라. 오늘은 재실일이며 원숭이에게는 관살이다. 관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오늘은 말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나친 밝음으로 타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돼지피가 귀인이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업 및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정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관재, 송사, 사고를 조심하라.